

짧고 좋은 시 모음 나태주 시모음

*풀꽃

자세히 보아야 예쁘다

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

너도 그렇다

*이 봄날에

봄날에, 이 봄날에

살아 있기만 한다면

다시 한 번 실연을 당하고

밤을 세워

머리를 벽에 짚어박으며

운다 해도 나쁘지 않겠다.

*바람이 붐니다

바람이 붐니다

창문이 덜컹댁니다

어느 먼 땅에서 누군가 또

나를 생각하나 붐니다

바람이 붐니다

낙엽이 굴러갑니다

어느 먼 별에서 누군가 또

나를 슬퍼하나 붐니다

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

숨쉬고 있다는 증거

외롭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

혼자가 아닐거라는 약속

바람이 불니다

창문에 불이 켜집니다

너는 먼 하늘 밖에서 누군가 한 사람

나를 위해 기도를 챙기고 있나 봅니다.

*그대 지키는 나의 등불

배가 고프는 날은 더욱 춥다

추운 날은 더욱 배가 쓰리다

창 밖에는 빗소리

술잔에 술을 따르듯

쉬임없이 이어지는

가을 빗소리

이 비 그치면 겨울이 오리라

얼음의 외투를 걸친 겨울이 문득

우리 앞을 막아서리라

그대도 이 빗소리 듣고 있는지

얼룩진 유리창 안에 갇혀

이 빗소리 들으며

나를 생각하는지....

*내가 너를

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

너는 몰라도 된다

너를 좋아하는 마음은

오로지 나의 것이요

나의 그리움은

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

나는 이제 너 없이도

너를 좋아할 수 있다

* 사는 법

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

쓸쓸한 날은 음악을 들었다

그리고도 남는 날은

너를 생각해야만 했다

*멀리서 본다

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

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

너 한사람으로 하여 세상은

다시 한 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

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

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

나 한사람으로 하여 세상은

다시 한 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

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

*아름다운 사람

아름다운 사람

눈을 둘 곳이 없다

바라볼 수도 없고

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 도없고

그저 눈이

부시기만 한 사람

